

# “성철 스님의 수행 정진은 사회 참여”

###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4차 학술포럼 발제자 한 목소리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물결이 일던 1980년대 두문불출하며 백련암 수행정진을 고집한 성철 스님은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였는가.

성철스님문도회(대표 천제)가 주최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4차 학술포럼 '퇴육성철과 종교의 현실참여'가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1980년대 성철 스님의 사회 참여에 대해 집중 조망됐다.

이날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불교의 현실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스님의 현실 참여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참여 결여는 불교계 역량 부족 결과

이날 김중인 국제재가불교포럼 대표는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이 가지는 현실 참여적 함의’ 주제발표에서 성철 스님이 사회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불교계 전체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1980년대 사회 변화기에 불교계는 교단 내부 갈등 등으로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종교가 사회와 정치의 쟁점이 돼야 한다는 의식이 내면에 있었음에도 성철 스님이 백련암에서 철저한 수행으로 불교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 것은



지난 1일 제4차 포럼에서 김중인 국제재가불교포럼 대표가 1980년대 당시 불교계의 역량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성철 스님, 사회 참여 관심있어도 불교계 문제 해결 위해 절속 생활

혹독한 수행은 불교와 사회관계 중의적 법어 속 정치적 메시지 전달

역량 회복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세속을 불교화시켜야지 불교가 세속화하면 불교는 죽는다”고 한 스님에 맞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나아가지 않고 절속주의 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행보를 잘 설명한다”고 밝혔다.

성철 스님 (타임)보며, 사회 변화 관심 이날 기조강연 '갈등의 시기 퇴육성철의

현실 참여 문제'를 발표한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성철 스님이 수행정진 중에도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며 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박경준 교수는 “성철 스님이 혹독한 수행 정진을 한 것은 현실 사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사회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스님은 <뉴스위크>, <타임> 지는 물론 해외 신간을 탐독하고 물리학과 심리학 등 현대학문을 섭렵해 체득한 불교 핵심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이 한글로 신년법어를 내린 점 등을 들며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스님이 중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의 대표 법어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이라는 법어조차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참여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스님은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어 역시 전두환 정권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간화선사로서 수행에 충실

박희승 조계종 문화부 문화차장은 간화선의 특징과 현실 인식을 통해 성철 스님의 현실 참여를 분석했다.

박 차장은 “1993년 성철 스님이 입적 시 범국민적인 추모열기는 스님의 본분사에 충실한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서 불교계체성 회복, 수행자상 정립을 통한 인재양성, 교단 재건과 쇄신 등이 바로 사회에 종교 본연의 역할을 다한 현실 참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인 2012년에는 ‘퇴육성철과 돈오돈수’를 주제로 돈오돈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스님의 불교 사상, 종단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열반 20주기인 2013년에는 ‘퇴육성철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현대 사상과 문화의 측면에서 성철 스님을 조명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면 중생”

리더스포럼서,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특강

“불교적인 삶은 현재에 머무른 삶이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삶은 중생의 삶이다.”

참여불교제가 연대가 12월 6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11년 마지막 리더스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리더스포럼에는 <정신과 의사가 부딪히게 배운 마음치료 이야기>의 저자 전현수 정신과전문의(전현수신경정신과 의원 원장)가 특강했다.

전현수 원장은 “한쪽으론만 치우쳐 고립된 생각을 하다보면 결국 스스로 치료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번뇌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바로 불교이다”고 말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와 미래에만 집착하다 보면 마음이 산만해진다. 상왕다니까야의 ‘천신품’에서는 천신이 비구에게 “금속에 사는 비구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얼굴이 깨끗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자, 비구가 “지나간 과거에 애태우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를 잘 지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현수 원장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으로 >꺼어있는 동안은 모든 일에 100% 집중한다 >몸과 마음에 100%의식을 둔다 >모든 행동을 소리내지 않게 한다 등을 소개했다.

이은정 기자

##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에 불서 3권 선정

한국문학번역원이 실시하는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에서 불교 관련 도서 3권이 번역지원 작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문학번역원 심사위원회(위원장 윤혜준)는 12월 7일 2011년 4분기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영어권 대상 지원 작품 8권과 비영어권 대상 지원 작품 14권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불교관련 서적으로는 영어권에서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과 ‘산사’, 비영어권에서 ‘어린이 삼국유사’가 선정됐다.

나무박사인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가 쓴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은 대장경판에 쓰인 나무를 분석한 것으로 영문번역은 김지현 씨가 담당한다.

이형권 시인의 ‘산사’는 전국 사찰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불서로 영문번역은 장은화 씨가 진행한다. 또 어린이 삼국유사(서경오 글, 이만희 그림)는 대장금 등 다수의 한류드라마를 번역한 대만인 동문군 씨가 중국어 번역을 담당한다. 각 선정작에는 16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노덕현 기자

## 조선왕실의궤 100년 만에 국민 곁으로

###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반환돼 16일 오대산 월정사서 환영행사

조선왕실의궤가 드디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한국 도서 1200여 권을 12월 6일 한국에 반환했다. 이 날 인천공항에는 김찬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 이상근 환수위 실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환영 행사에서는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도서 반환을 확인하는 구상서를 교환했다.

같은 날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찾기 별도민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선왕실의궤의 강원도 반환을 촉구했다.



8일 중로 보신각에서 열린 환영 타종식에서 불자들이 조선왕실의궤 환영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구했다. 의궤가 본래 오대산 사고에 보관됐던 만큼 강원도에 반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 제자리찾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조선불교도연

맹 전국 신도회도 8일 공동 선언서를 발표하고 의궤 반환을 환영했다.

또한 1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조선왕조 의궤 고유제 및 환영행사’가 열린다.

박기범 기자

## 제3회 삼국유사 학술제 관련학자 100여명 참가

삼국유사를 재조명하고 일연스님의 충·효 사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제3회 일연·삼국유사 학술제와 문학제가 11월 25일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제에는 삼국유사 관련학자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국유사 관련 논문 공모에서 당선된 한국 민속종교연구소 장정태 소장 등 3명을 시상했고 일연·삼국유사 문학제 작품집 <인각사로 오라> 출판 기념회도 마련됐다.

또 시낭송과 삼국시대 어린이 한복 패션쇼, 기타연주, 국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손운철 대구지시장

## 여래장사상의 변천 집중 조명

서울대·금강대, 1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불교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여래장사상이 발원지인 인도에서 동아시아, 티베트를 거치며 어떻게 변용됐는지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조은수)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09호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 동아시아, 티베트의 여래장사상의 형성, 변용, 그리고 수용에 관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인도의 여래장 사상, 동아시아의 여래장 사상, 티베트의 여래장 사상이 나누어 발표된다.

먼저 최성호 서울대 교수가 ‘무역의 보성론서 분석에 대한 연구-불이성(不二性)의 강조를 중심으로’, 김성철 금강대 교수

가 ‘중성의 본질에 대한 유가행과와 여래장사상의 대립’ 발표를 통해 인도 여래장사상의 발원과 전개를 짚는다.

이어 고승학 동국대 교수의 ‘대승기신론의 여래장개념이 지닌 수행론적 의미’, 박보람 금강대 교수의 ‘내 몸을 보는 두 시각, 여래출현과 여래장’ 등 동아시아 여래장 사상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다. 티베트불교에서의 여래장 사상의 전개에 대해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보성론 1.154~155 계승의 의미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들’, ‘육 로덴체랍의 여래장 이해’ 등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에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사상 연구소장의 사회 아래 ‘여래장은 아드만 사상의 아류 혹은 비불교적인가?’를 주제로 한 종합 토론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이 광고는 본사의 입점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 차기종정 추대와 관련,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스님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 제2신 -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이하 동 선언)과 조계종 자성과 색신결사 추진 본부장 도법(이하 본부장) 명의의 12월 7일자 「여경실장께 보내는 편지」(이하 동 편지)는 도법 본부장이 종정과 종단원로를 어떻게 보아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특히 동 선언이 원로회의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정의 재가를 받으려한 절차와 과정이 이를 말해 줍니다. 94년 불법사태 이래 불설을 왜곡·조작함으로써 ‘불법을 파괴’해 온 본부장의 동 편지와 같은 종정에 대한 불경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차기 종정 추대를 계기로 종헌상의 교조 석존과 불교교단 내 원로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기 종정 추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재차 소납의 의견과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1. 본 조계종의 종정은 교조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신성한 가르침, 제불 여래의 법통성, 조계선종의 전통을 전승해 나갈 지도자가 추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제1신 제5항에 적시된 ‘출가자로서 수행자의 길’을 걸어 온 적격자가 추대되어야 합니다. 즉,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는 출가자와 수행자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계율에 의해 자신을 지키는 자(법구경 제184계, 185계, 四分戒, 대정22,1022중)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종정 후보자 가운데 울장(四分律)등에 명시된 파차(破遮)의 대상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非法非律非佛所敎, 화합승을 파괴한 자와 그 동조자, 惡友와 惡智識, 和尚·아사리에 損滅을 끼치거나 住處를 없애는 책임자 등입니다.

2. 94년 종단사태의 치유와 여법한 화합을 위해 종단의 어른이셨던 윤월하 전종정과 현 법전 종정께서도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 회복과 종단의 생명인 ‘화합’을 위해 사면할 것을 고시하셨습니다. 또한 원로회의는 수차의 사면 유시를 내렸고, 원로회의 의장단은 개회중인 중앙총회를 찾아가서 역사에 기록될 ‘질’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90년대 3차례 불법사태를 주도한 승려들과 그 문도들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종정은 종단화합을 파괴하는 자와 그 동조자, 불법법률의 질서파괴와 유린 등 불법·획법 행위를 자행하는 자를 攝受·折伏할 지혜와 사명감을 가진 출가 수행자가 추대되어야 하겠습니다.

3. 원로회의와 종단 원로스님들께서는 불교승단이 불설에 입각한 장로들의 교시와 지도 아래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 3차례 廢佛事態와 제도개혁으로 인해 원로회의 위상이 격하되고, 종단의 주요 정책이 종회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불설에 입각한 갈마제도와 같은 선진화한 승단의 고유한 제도와 위계질서를 망각한 채 종단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원로회의는 개정된 종헌 제28조 ①의 9항「中央宗會에서 附議한 宗團重要宗策

의 調整權」을 94년 개정 이전의 종헌 제26조 5항「宗團 重要宗策의 調整」으로 환원하고,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원로회의가 중요정책을 결정·조정하는 종단의 최고·최종의결기관이 되어야합니다.

4. 석존 이래 전승해 오는 제불여래의 법통을 계승해 나아가 차기 종정은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종과 계파를 초월하여 추대되어야 하겠습니다. 94년 종단사태 이래 종단을 주도하는 일부 문도와 특정 계파는 『大般泥洹經』(대정12, p. 867중)에서 말하는 청정(淸淨)·동몽(童蒙)·범계(犯戒)의 3종 승가 가운데 동몽(童蒙)의 승가와 범계(犯戒)의 승가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유력한 문종과 종단 실세들이 소속된 단체가 동몽의 승가와 범계의 승가로 변질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90년대와 같은 불법사태는 물론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과 같은 문건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법 본부장은 동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설을 왜곡·조작하였으며, 동 편지가 나온 경위를 보면 종단원로정도는 아예 인중에 없고, 급기야는 종정에 대한 도전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단의 원로·종진스님들께서는 동 선언의 종정재가 요청은 재가가 아니라 강요이자 명령과 같은 문건이라고 보셔야 할 줄 압니다. 이상으로 소납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섭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12월 9일